

# simpro의 요즘세상살이

simpro

소개글

## 목차

1	저도 정말 미안합니다.故장자연님...	4
2	일본대지진과 사회적,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해...	7
3	일본의 영웅결사대 320명의 건투를 빕니다.	10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자연양 사건에 대한 인터넷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  
문서위조정황 어찌고 저찌고 한다.  
경찰청장은 문서의 진위를 가려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진본이라면 수사한다고 하고..  
위조되었다는 문건을 들고 브리핑하는 경찰관계자의 얼굴이  
특의양양해 보이는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두렵다.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때도 온나라가 난리통에도  
내사하고 조사하였으나 혐의도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핑계로 물어버린 장자연사건이  
지금 다시 고개들 들고 있으나 .  
이 정권에서는 역부족일것이라는 사실이 또 앞을 막막하게 한다.

기득권세력이 끼어있는 이번 사건은 한사람이 밝혀지면 모두 다 밝혀져야 하므로  
철저히 입막음을 해왔던 듯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인 편지의 진위여부로 몰아가서  
결국은 편지가 위조, 날조되었다고 할것이다..  
고로 편지가 위조,날조되었으므로 수사할 수 없다라고 매듭지어질 것이다.

이 가엾은 여인의 분노의 죽음에 대해  
그 후한무치한 녀들은 명박산성뒤에 숨어  
그림자도 안보이고 희희낙낙하고 있을 것이다..  
두발 쪽 펴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있지도 않은 존재에게 접대를 한 꼴이 되었고  
글고 귀신에 씌여 죽었다고 말하자는 것이다.  
망자는 말이 없지만  
이 사회가 그녀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밖에 없는 생각에 맥만 빠진다.

우리는 그들을 진짜 귀신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조리 밝혀내어 사회의 진실로 발가벗기고  
욕정의 단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이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의로운 이들의 소명이요 책무인것이다.

경찰의 손을 떠나 검찰의 손도 떠나 특검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그녀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밝혀낼것이다.  
그렇지만 그 또한 숫자놀음에 가로막혀 좌절될것이다..

결국 이정권이 교체되어야 가능한 일이 되었다.  
이 얼마난 서글픈 일인가..  
망자는 저승에 가지도 못하고 구천을 떠돌면서 복수해 줄것을 절규하지만  
그러하지 못함에 서글프기만 한다.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지켜만 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편지의 존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건의 존재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한 사실에  
장자연님의 죽음이 헛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배우 문성근씨의 "정말 미안합니다. 장자연님...."이라고 일인시위를  
시작했다라는 것이다..  
이 미약한 시작이 단초가 되어 분노의 물결이 일렁이는 큰 파도를 만들어내어

그러한 사고의 장벽을 쓸어버려야 할 것이다.

벼나고 속이터져 오늘 저녁엔 못먹는 술이라도 해야 되겠다.

"나도 정말 미안합니다..장자연님."



먼저 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희생된 분들에 깊은 애도의 기도를 드립니다.

2011년 3월11일 금요일 오후2시50여분정도에 인터넷판으로 들려온 실시간 속보를 보았다..

일본 동북지방 (센다이 동쪽130km)에서 진도8.8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처음엔 지진이 잦은 일본의 특수성때문에 큰 관심없이 일에 몰두하였으나 8.8이라는 강도가 자꾸 눈에 어  
른거렸다..

작년 이맘때쯤 발생된 칠레지진때도 그정도 였던것 같았으니 대형피해는 없겠지 하며 애써 외면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게 먼 태평양건너 남미나 중미의 일이 아닌 우리 이웃나라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  
나 내 사촌이 거기

살기때문에 속보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다.

아~~ YTN실시간 속보뉴스를 보면서 전해져오는 생생한 화면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다.

어떤 재난영화에서나 본 듯한 비슷한 광경이 화면으로 생생히 전파를 타고 있었다.

지금 일이 문제가 아니다..

그 지진의 여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일본경제의 침몰과 한국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지진피해로 인한 사상자 또한 엄청날 것으로 생각되어 일본사회의 대 혼란이 야기되면 그 충격파가 사회전반에 골고루 퍼져나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며 그 피해와 혼란은 일본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어떤식으로든 닥쳐올 것이다..

지진소식이 들리자마자 일본 증시는 순식간에 1%정도가 폭락하여 마감하였다..장 마감무렵이었으니 그 정도였지 장중에 지진피해가 알려졌으면 상상을 초월할 폭락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다.. 아마 월요일 열리는 장엔 쇼크증시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밤사이에 끝난 유럽증시도 1%내외의 하락을 하였고 뉴욕증시도 장초반 하락으로 출발하여 혼조세를 보이다 유가하락과 소비지표호조로 상승으로 마감하였다...그러고 보면 미국인들은 참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들이다...

일본의 지진피해로 그들의 경제가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이 사상최악의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울부짖는 일본경제나 국민의 슬픔보다 더 우선시되는 현실인 것이다..

국제유가가 일본시장의 수요감세가 예상되어 폭락한 관계도 있겠지만 미국인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산업시설의 파괴로 인해 시설복구등을 위한 경기부양책에 직간접적으로 미국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사고방식이 미증시의 상승으로 들어올린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여파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일본과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경쟁하는 위치에 있지만 또한 일본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휘둘리는 묘한 관계에 놓여있다.. 우리나라 제품의 국산화율이 몇%라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의 거의가 일본이나 독일인 것이다..

뉴스에는 업종별로 이해득실이 있겠지만 동반타격과 반사이익의 비중이 비슷하게 거론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한국기업들의 경쟁력강화로 이득을 볼 것 같지만 내생각엔 공생관계에 있는 한.일 경제상황에서 단기적, 장기적을 불문하고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 보다 수입하는 물량이 3배정도 더 되는 것 같으니 자명한 일 아닌가..

저들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저들의 불행이 곧 우리의 불행이 될 수 밖에 없는 기묘한 위치나 관계가 된 것이다.

아마도 월요일 우리 주식시장은 강보합으로 출발하여 치열한 보합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반사이익이 나 악재냐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 일순간 힘이 쏠리는 쪽으로 기울 것이며 그 에너지는 엄청날 것이다.



월요일 일본시장은 아마도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 거래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유럽은 악보합정도 될 듯하지만 미국시장은 결국 하락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의 힘이 미치는 세계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작년기준으로 약8.7%라 한다..

지금도 GDP대비 약10%정도의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이번 대지진은 그야말로 악재중의 악재일 것이다.

피해복구를 위해 다시 없는 재정을 풀어야 되고 사회간접시설의 대량 파괴와 생산시설의 대파 및 가동중 지등으로 세수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며 풀어야 할 돈은 적자상태이니...

그런 돈이 어디 있겠나....결국 국내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일본은 세계 곳곳에 풀어놓은 그들의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고 투자금을 잃은 상대국의 증시는 폭락을 면치 어려울 것이다. 전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옆친데 덩친격으로 어려운 정치상황에서 힘겹게 버텨가던 일본경제에 메가톤급 대지진은 치명타를 안겨 준 것이다.

우리들도 그런 기억이 많을 것이다...살아가면서 흔히 겪는 위기에 훨씬 더 큰 위기가 오면 어떠한가..체념 하고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버티며 이겨낸 사람도 있다. 부디 이웃나라 일본도 곳곳히 버티고 세계 여러나라에서 도움을 주고 한다면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은 슬픔에서부터 이겨내리라 본다..

또한 일본인의 재난에 대한 극복의 힘과 침착함 그리고 무엇보다 선진국으로서 대다수 국민의 높은 질서 의식으로 여타 후진국의 폭동이나 약탈, 갈취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본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자체를 싫어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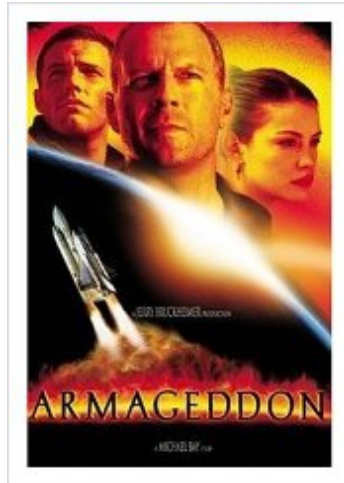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위정자들은 별로 좋아 하지 않지만 대다수의 일본국민들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비탄과 절망에 빠져있는 일본과 일본국민여러분 힘내세요.....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말고 시련을 견뎌내며 반드시 일어서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우방들은 당신들을 절대적으로 도울것이며 보호 할 것입니다..

일본국민 여러분 힘내세요....멀리서 진정으로 응원합니다..



미국 동부에 운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우주항공국은 이를 뉴욕크기만한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 합니다.

텍사스 크기만한 소행성이 시속 2만 2천 마일의 속도로 지구로 돌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사는 대책을 세웁니다.

남은 시간은 18일.

지구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돌진하는 소행성으로 우주선에 굴착기를 싣고 전문가를 보내 구멍을 뚫어 핵폭탄을 장착,

터트려서 궤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해리(브루스 윌리스)는 굴착 기술의 전문가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우주 비행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의 동료들과 소행성으로 떠납니다. 프리덤호와 인디펜던스호는 소행성에 접근하지만 인디펜던스호는 유성의 파편을 맞고 추락하고 프리덤호만 무사히 착륙에 성공합니다..

800피트의 구멍을 뚫어야 하고 지구의 운명은 시시각각 멸망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800피트의 구멍을 꼭 뚫어야 하는데...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동료를 잃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해리는 침착합니다..

결국 인디펜던스호에서 굴착기로 탈출에 성공한 A.J가 합류하여, 그들은 어렵게 어렵게 굴착에 성공하고 핵무기를 장착하는데도 성공합니다.

이제 소행성을 탈출하여 무선장치로 폭파만 시키면 되는데...

그 무선장치가 고장나고 누군가가 남아서 수동으로 눌러야 합니다..

결국 제비뽑기에 나서 임무를 무사히 마친 후 지구로 돌아가서 해리의 딸인 그레이스와 결혼하기로 한 A.J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A.J는 해리와 지구를 구하기 위해 흔쾌히 자신이 소행성에 남기로 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레이스와 결혼을 앞둔 A.J를 못나오게 만들고 해리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화상대화를 하지요..

I Love You...



1998년 개봉되어 전세계의 관객을 울린 재난영화의 대명사 아마겟돈의 영웅들..

지금 일본을 지키기 위해 더 나아가 핵재앙으로 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나선 320명의 결사대가 또 영웅이 되어갑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근무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소 기술자 20명과 도쿄전력의 새로운 자원자 230명,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 사수중 있었던 70명 등 모두 320명의 결사대가 꾸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현장 관계자의 말에도 그게 운명이라면 받아들인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미가제가 된 것입니다..

2차대전 때 일본은 미국을 향해 진주만 공습으로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본의 조종사들은 폭탄을 안고 미군함에 돌진합니다.

자신의 조국을 위해.....자신의 생명을 초개와 같이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숨도 다른 일본인과 같이 소중합니다.

이들은 팀으로 나누어 10~15분 동안 원자로에 해수를 번갈아가며 투입하고 있다 합니다.

그 이상의 시간은 방사선 노출로 인한 피폭 피해가 허용치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압력 완화 밸브를 여닫고 냉각수를 투입하는 일도 이들의 역할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방사성 누출에 대한 우려로 자국민을 철수시키는 등 원전에 대한 공포로 그 침착하던 일본인들도 사재기 등이 나타나고 일부 품목은 품귀현상까지 일어나는 등 며칠전과는 전혀 다른 동요가

나타나고 있다 합니다.

대피소에서는 제2차 쇼크로 인한 사망자도 생기고 도쿄전력이나 정부관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일본인들에게 말하지 않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 그 침착한 일본인들이 동요할 만도 하지요.. 원전에 전기만 공급이 되면 냉각수문제는 해결 될 듯 한다 해서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합니다..

“철수는 없습니다..이제 우리는 당신들 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간총리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습니다..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원전을 지켜내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과 그들의 가족, 민족을 핵의 재앙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패하면 아무도 원전의 폭발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원전이 폭발하면 체르노빌원전폭발처럼 인구밀집지대에 막대한 인명의 희생과 도쿄에 전기공급이 끊겨 일본경제에 최악의 피해가 올 것이라 합니다.

원전사수를 위한 결사대 320명..이름은 모르지만, 그들은 이시대의 새로운 영웅이 될 것입니다.

한명의 희생도 없이 임무를 훌륭히 마치시길 먼곳에서나마 기도 드립니다..

파이팅 결사대.. 힘내라 일본,,

꼭 해내세요..320명의 결사대여..

# simpro의 요즘세상살이

## 블로그

simpro(운명이다)의 반백년 이야기

<http://blog.daum.net/huhasim>

## 저자

simpro

## 발행일

2011.03.22 11:52:55

 블로그